■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11-240.
http://doi.org/10.17948/kcs.2022..97.211

제주 유학자 변경붕(邊景鵬, 1756-1823)의 성리학적 인식 탐구

이창일(李昌壹)*

목 차

1. 서론
2. 성리학설과 미완의 유서(類書)
3. 실존적 문제에 대한 성리학적 해석
4. 결론: 실존적 삶과 성리학의 정체성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시대 후기 변경붕의 유학 철학사상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변경붕은 당시 성리학이 지도 원리로 자리 잡지 못한 제주 지역에 도입된 성리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하지만 변경붕의 철학사상을 연구하는 데 주된 장애는 그가 자신의 철학사상을 본격적으로 저술한 것이 거의 없거나 현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의『문집』에 기호학파의 글이 많이 채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철학적 입장은 기호학파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변경붕의 독자적인 철학사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성리학의 발전 단계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던 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의『문집』에는 실존적 체험을 성리학에 입각하여 성찰한 내용이 존재한다. 기호학파에 대한 글이 공식적이고 외면적인 철학사상이라면 이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면의 철학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 삶과 죽음에 대한 체험과 그것의 의미를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추구했으며, 종교적 의례의 영험이나 꿈의 조짐과 예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한 인물로 보인다.

변경붕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리학의 합리적인 질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성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된다. 그는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제주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타자의 인식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의 철학사상은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성리학의 관점을 가지고 성찰한 이해를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제주의 토속 문화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합리적인 자각을 해나가는 성리학 이해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변경붕, 성리학, 기호학파, 귀신(鬼神), 명(命), 제주의 토속 문화.

1. 서론

이 글은 조선 시대 후기 제주 지역의 유학자 일재(一齋) 변경붕[1]의 성리학적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제주 지역의 속신(俗信)을 성리학적으로 이해하여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고 이를 삶의 원리로 수용하는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변경붕은 과거를 통해 관료의 길을 걸으면서[2], 당시에는 아직 성리학이 삶의 원리로 투철히 적용되지 않았던 제주 문화 속에서 성리학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삶을 영위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의 『문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3] 그러나 이 『문집』은 성리학을 이해하는 변경붕의

1) 변경붕의 생졸 연대는 다소 혼란이 있다. 그의 문집인 『(통정대부 사헌부 장령) 변경붕 문집(通政大夫 司憲府 掌令)邊景鵬 文集』(이하 『문집』)에서는 졸년이 미상으로 표기되어있고, 연구자들의 경우는 졸년이 1824년으로 되어 있다. 김새미오, 「일재 변경붕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2010, 93면; 김치완, 「제주의 조선유학자 변경붕의 이중문화정체성」, 『문화와 융합』 39(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4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에서는 1823년으로 표기되어있다. 여기서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를 따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http://people.aks.ac.kr/index.aks) 변경붕 항목 참고.

2) 1795년(정조 19)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에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을 지냈고, 1811-1813년까지 제주도 대정현감(大靜縣監)을 지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참고.

3) 변경붕 저, 김새미오, 허남춘, 김병국 역, 『(통정대부 사헌부 장령) 변경붕 문집(通政大夫 司憲府 掌令)邊景鵬 文集』,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변경 붕의 일생과 사승관계에 대한 정보는 『문집』의 해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변경붕 참고.

독자적인 관점을 알 수 있는 저술이 실려 있지 않아서, 적어도 그의 고유한 성리학적 인식을 살펴보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4] 『문집』에서 변경붕의 성리학적 인식은 주로 기호학파의 성리학설을 채록하여 정리한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글을 통해서는 변경붕이 지닌 고유한 특징이나 변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변경붕의 성리학적 인식의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한 일종의 수필 형식의 글들에 주목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본토와 달리 성리학의 학문적 심화와 확산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당시 제주 지역에서 성리학을 기준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를 사색하고 실천한 내용에 주안을 두자는 제안이다. 변경붕은 제주의 땅에서 태어나 제주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체험한 일상적 삶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초자연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의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 이들을 성리학적 합리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술 속에는 성리학의 언어와 논리로 해석된 변경붕의 독자적인 사유가 드러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집』에 실린 성리학 및 유학에 관련된 글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리학 분야이고, 두 번째는 실존적 삶에 대한 성찰적 기록들이며, 세 번째는 유서(類書)의 성격을 띤 기사(記事)를 채록한 분야이다. 첫 번째 성리학 분야는 변경붕이 일생을 통해서 추구한 학문의 공식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이룬 것이며, 과거를 통해서 출사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학문의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성리학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기심성론과 같은 형이상학과 수양론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내용들이 속한다. 이는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리학의 원론에 해당한다. 특히 기호학파의 철학적 입장이 담겨있기 때문에, 변경붕의 유학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기호학파의 충실한 계승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의 실존적 체험에 대한 성찰이 담긴 기록들이다. 앞으로

4) 김새미오, 앞의 글, 103면; 김치완, 앞의 글, 15면.

이 글에서는 이 기록들이 독립된 철학 저술이 발견되지 않는 변경붕의 특징적인 성리학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간주하고자 한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변경붕의 유학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 기록이 담긴 글 속에서 유학 사상을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서의 성격을 띤 기사들을 채록한 분야인데, 여기에는 성리학자의 교양을 확충하기 위한 경학 지식의 습득과 세계와 사물에 대한 박물학적 관심의 소산에 따른 다양한 지식들이 남겨져 있다.

변경붕의 성리학적 인식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문집』의 글들을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 접근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로 보인다. 첫 번째는 주자 및 기호학파의 성리학설에 대한 채록과 여러 경전들의 채록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비록 변경붕 자신의 글은 아니지만, 채록의 내용은 그의 철학적 입장을 시사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드러나는 변경붕의 철학사상이란 독자적인 사색이 아닌 기존 성리철학의 요약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변경붕의 철학사상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적 사유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인식의 틀이 담겨 있는 실존적 기록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기록 속에서 변경붕은 성리학의 합리주의적 태도에 입각하여 자신의 체험과 당시 시대의 환경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우선 변경붕이 수용한 기호학파의 표준적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가 채록한 율곡의 글들을 통해서 살펴본다. 또한 유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는 주로 박물학적 관심 속에서 채록하여 정리한 기사들이다. 직접적인 철학의 특성보다는 이에 배경이 되는 전반적인 지적 관심 내용을 보여준다. 이 장절은 기호학파의 성리학설과 유서의 기록들에 대한 변경붕의 이해를 요약하는 원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그가 비록 성리학의 탁월한 성취나 이론적 발전의 계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적 한계 속에서도 충실한 성리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모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변경붕이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성리학적으로 성찰한 내용을 귀신론(鬼神論)과 명론(命論)이라는 두 주제로 설정하여 탐색한다. 본 논문의 주요 논지이므로 분량이 많아 두 주제로 나누었다. 이 두 주제를 통해 당시 제주 문화의 속신(俗信)을 지배하던 비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벗어나 성리학의 합리주의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성리학자(유학자)의 세계관을 정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속신에 대해 배타적 비난과 핍박의 태도가 아닌 자신의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 층 더 높은 인식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 했던 유학의 포용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성리학설과 미완의 유서(類書)

1) 기호학파의 표준 입장

변경붕의 『문집』에는 율곡을 포함한 기호학파의 거장들에 대한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율곡에 대해서는 각별한 존숭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변경붕의 철학적 입장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 (율곡 선생이) 스승에 말미암지 않고 도체(道體)에 묵계한 것은 주렴계와 같고, 한번 변하여 도(道)에 이르러 깊이 생각하고 실제 실천한 것은 장횡거와 같고, 발명이 극치에 이르러 통투하고, 쇄락한 것은 정명도와 같고, 박문약례(博文約禮)를 제도하여 모아서 크게 이룬 것은 회옹부자(주자)와 같다.[5]

이러한 기록은 이른바 도통론(道統論)에 입각하여 보자면, 성리학의 정통 계보를 율곡 중심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는 율곡이 성리학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기호학파의 공식입장이며, 변경붕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

5) 변경붕, 앞의 책, 123면. 송시열이 지은 「자운서원묘정비(紫雲書院廟庭碑)」이다. 『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권37, 「부록5(附錄五)」. 변경붕은 이 외에도 송익필(宋翼弼)의 제문(『율곡선생전서』 37, 「부록5」, 「제문」), 신응구(申應榘), 김창협(金昌協), 성혼, 이항복(李恒福), 박지화(朴枝華), 안방준(安邦俊) 등의 기록들(『율곡선생전서』 38, 「부록6」, 「제가저술잡록(諸家著述雜錄)」)을 싣고 있다.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호학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에게 주는 율곡의 서신 일부가 『문집』에 실려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선 유학사의 흐름 속에서, 우계에게 준 율곡의 서신은 이른바 율곡과 우계의 철학논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성격은 퇴계와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사칠논쟁(四七論爭)과 유사한 목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6] 비록 변경붕이 율곡과 우계의 철학논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한 글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철학 논쟁에 대한 관심은 조술(祖述)의 태도로서 율곡의 견해를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변경붕이 우계에 답한 율곡의 서신들을 채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① 인심도심과 사단칠정, ② 이기지묘(理氣之妙), ③ 이통기국(理通氣局), ④ 기발리승(氣發理乘). ①은 인심과 도심 및 사단과 칠정 사이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것이다. 인심과 도심은 모두 심(心)의 두 가지 근본적 양상을 나타낸 것이며, 사단과 칠정은 정(情)을 두 가지로 구별한 것이다. 이어서 ②, ③, ④는 이른바 이기론에 대한 율곡의 해석이며, 이기론의 주제별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의 이기론 해석은 '이기의 묘함'에 입각해서 수립된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과 기발리승일도설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이하 '기발일도설')로 정리할 수 있다. '이기의 묘함'에 대한 논리는 율곡의 독창적인 이론으로 평가받는 '이통기국론'과 기발(氣發)만을 인정하고 이발(理發)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기발일도설'로 이어진다.

변경붕이 율곡을 통해서 정리한 이기론, 인심과 도심 및 사단과 칠정 등과 같은 심성론적 개념들은 인간의 구체적 실존을 이해하고, 순선한 이(理)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수양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변경붕이 채록한 내용은 이들 개념 간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변경붕은 율곡의 서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발(理發)을 인정하는

6) 전호근, 「16세기 조선성리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108면 참고.

퇴계학파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한 비판은 채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기호학파의 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애초 율곡의 서신이란 우계가 견지하고 있던 퇴계학파의 이해 방식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논리가 날카롭게 상충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이해는 율곡학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채록 내용이 없는 것은 인식의 부족인지 학파적 영향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기 어렵다.

변경붕이 율곡의 글에서 채록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성리학의 정통적인 원론에 입각해서 율곡이 독창적으로 사유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율곡학의 핵심내용을 변경붕이 자신의 공식적인 철학적 입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단지 지식의 습득만을 의도했는지, 독자적인 체득의 내용이 있는지는 자료의 제한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7] 다만 그의 철학사상이 지향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채록 기사 내용

변경붕이 채록한 기록들은 유서(類書)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단순한 채록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를 읽고 정리하여, 박학을 추구하는 유학자의 교양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기사들이다. 그의 채록 기사들에서는 박물학적 관심이 투영되어 있다.

보통 이러한 기사들은 대개 주제별로 다양한 서적으로부터 기사를 모아 편집한 것이고, 서적의 전체를 읽지 않고도 지식을 축적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양서 역할을 하거나, 읽기나 쓰기를 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작시

7) 변경붕의 성리설 채록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한 단지 학습 차원의 목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위인지학(爲人之學)은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성리학적 인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삶을 관조하는 근거가 있다면 성리학의 이론적 성취여부와는 달리 성리학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채록은 이러한 성리학적 인식을 위한 자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호학파의 성리설은 제주지역의 주된 성리학적 주류였고, 귤림서원(橘林書院)을 중심으로 한 가학과 학업의 이력으로 보아 기호학파의 설을 성리학의 정통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새미오, 앞의 글, 95-102면 참고.

작문 용례의 길잡이로 활용되는 편이다.[8] 변경붕은 성리학과 기호학파의 성리학 해석, 유가 경전,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등을 주로 채록하고 있다. 다만 문장의 출전이 나타나지 않고, 채록의 유형이나 주제가 일정하지 않다. 더구나 자신의 의견을 사항마다 덧붙이는 주석이나 기록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변증은 없다. 그렇지만, 경학과 제자백가서의 특정한 지식을 정리하여 채록한 것은 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들이 강목으로 분류되어서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다. 마치 '미완의 유서'와 같은 이 채록들을 ①성리학과 경학, ②제자백가서 등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성리학과 경학에는 주자의 저술과 기호학파의 저술들이 채록되어 있다. 주자의 저술 가운데서[9] 본체론(이기심성론, 귀신론), 지식론(격물치지), 수양론의 중요 개념들을 채록하고 있으며, 역법(曆法)과 천지론(天地論),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논한 인물지성(人物之性) 등에서 중요 개념들을 선별하고 있다. 간혹 적은 분량이지만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불씨잡변(佛氏雜辨)』에서 심(心)에 관해 논의한 내용도 섞여 들어가 있다.

기호학파 저술에서 가장 많은 것은 율곡의 글이다.[10] 『율곡집(栗谷集)』에서는 주자의 글에서처럼 이기심성론에 집중해서 채록을 했다.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는 전체 분량을 대상으로 채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수기(修己)」편의 분량이 가장 많다. 이기심성론 이외에도 율곡의 잡저(「절서책(節序策)」, 「수요책(壽夭策)」, 「동호문답(東湖問答)」, 「해주향약(海州鄕約)」)를 발췌하고, 「부록」(「제문」, 「자운서원 묘정비」, 「제가기술잡록」, 「연보」, 「소차(疏箚)」)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채록했다.

기호학파의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저술도 포함되어 있다. 『송자대전』에서는 주로 상소문이 채록되어 있다. 『농암집(農巖集)』에서는 김창협(金昌協,

8) 유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심경호,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을 참고.

9) 『문집』의 목차에서는 다음 제목에 해당된다. 번호는 장의 표시이다. 「09.주자(朱子)의 격물치지변(格物致知辨)」, 「27.주자(朱子)의 서책(書冊)」, 「14.주자어류(朱子語類)」, 「25.회암집(晦庵集)」, 「28.대학혹문(大學或問)의 중요한 의의(意義)를 뽑아내다」.

10) 『문집』의 목차에서는 다음 제목에 해당된다. 「10.율곡집(栗谷集)」, 「11.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적는다」, 「22.『농암집』, 『송자대전(宋子大全)』」, 「26.송자대전」, 「29.율곡(栗谷)의 글」. 목차의 제목 가운데는 『문집』의 역자들이 임의로 만든 것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1651-1708)이 중구(仲舅, 가운데 외삼촌) 나양좌(羅良佐, 1638-1710)에게 쓴 편지를 채록했는데, 송시열과 불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회니시비(懷尼是非, 윤증과 송시열의 불화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는 계기가 된 사건)에 관한 김창협의 견해를 볼 수 있는 자료지만, 『농압집』에서 빠져 있는 편지라는 것이 흥미롭다.

경학 분야는 『예기(禮記)』의 여러 편들(「악기(樂記)」, 「월령(月令)」이 주를 이룸)에서 채록했는데 전체적으로 분량은 적다. 또 『주례(周禮)』「하관(夏官)」「직방씨(職方氏)」의 글이 있지만, 역시 분량은 적다. 직방씨는 주대(周代)의 관직으로 천하의 지도(地圖)와 사방의 직공(職貢)을 관장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②제자백가서에는 『회남자(淮南子)』와 『법언(法言)』이 채록되어 있다. 특히 『회남자』의 전체를 대상으로 채록한 것이 특징이다. 『회남자』는 자연 질서를 정초하고 인간사를 경영하기 위한, 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이치를 두루 통달하여 천하 경영을 꿈꾸는 원대한 목적을 지닌 책으로 보통 잡가(雜家)로 분류되어 왔다. 『회남자』를 편찬한 유안(劉安, 기원전 179-122)은 한(漢)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천하 경영의 원칙과 그에 관한 지식을 망라한 것이다. 전반부 1-8편에서는 자연 이치와 인간 삶의 근본 원리가 되는 도(道)의 방면을 주로 설명하고, 9-21편에서는 인간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사(事)의 측면을 주로 말하고 있다.[11] 변경붕의 박물학적 관심이 잘 드러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양웅(揚雄, 기원전 53-기원후 18)의 『법언』은 적은 분량이 채록되어 있다. 유서의 한 가지 목적인 문장의 습득은 도(道)를 얻으려는 것과 병행해서 문장을 짓는 데도 요긴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변경붕이 『법언』을 채록한 이유도 문장 기법을 습득하거나 전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을

11) 이석명, 「회남자 연구의 사상사적인 의미」, 『泰東古典硏究』 19,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03, 6-7면. 『회남자』의 지식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인간 및 하늘과 땅의 삼재를 통관하려는 지식의 포부를 볼 수 있다. 이는 혹 기호학파의 주기론(主氣論)적 경향 즉 기로 구성된 세계 전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것으로 보인다.

이상 변경붕이 채록한 글들은 유학의 관심이 짙은 유서의 성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완정한 형태로 편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으로 그치고 말았다.

3. 실존적 문제에 대한 성리학적 해석

1) 귀신론(鬼神論)

변경붕의 『문집』 전반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실존적 기록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 기록들은 한 개인의 개인사에 대한 성찰적인 사색이 담겨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의 철학사상을 볼 수 있는 단서로 삼을 만하다. 이러한 성찰적 사색에는 그가 일상적 관심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일정한 견해가 담겨 있으며,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철학적 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대체적으로 '귀신(鬼神)'과 '명(命)'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붕은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분량이 담긴 '귀신'[12]에 대한 글을 채록하고 있다.

> 정자가 말한다. 귀신은 천지의 공용이고, 조화의 자취이다. 정자가 말한다. 이기(二氣)의 양능(良能)이다. 주자가 말한다. 두 기의 측면에서 말하면, 귀(鬼)는 음(陰)의 영(靈)이고 신(神)은 양(陽)의 영(靈)이다. 일기의 측면에서 말하면, 이르러 펴지는 것은 신(神)이고, 돌이켜 돌아가는 것은 귀(鬼)이다. 실상은 하나의 사물일 뿐이다. 음과 양이 합하면 백(魄)과 혼(魂)이 응결하여 태어남이 있다. 음과 양이 나뉘면 혼은 올라가 신이 되고 백은 내려가 귀가 된다. (…)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성경(誠敬, 정성과 공경)으로써 자신의 정신(精神)을 모으면 저쪽의 정신도 또한 모인다.[13]

성리학에서 말하는 귀신은 '이기의 양능'으로서, 음양을 나타낸다. 이는 세속에서 말해왔던 귀신에 대한 합리적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

12) 『주자어류』에서 권1-2가 리기론이고 권3 전체가 귀신이다. 귀신의 주제는 리기, 성리(性理) 주제를 능가하고 있으며, 격물(格物) 주제보다도 적지 않다. 박성규, 「주자철학에서의 귀신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25면 참고.

13) 변경붕, 「14.주자어류(朱子語類)」, 앞의 책, 176-177면.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어법 그대로 ‘이치에 합당하다’는 뜻이고 ‘사물의 현상에는 그에 합당한 이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이기론에 따른 이해 방식을 가리킨다.

이기론에 의하면 귀신은 귀(鬼)와 신(神)의 기(氣)로 이루어진 기이다. 또한 귀는 음(陰)이고 신은 양(陽)에 속한다. 음양이 둘이면서 하나로 결합하여 있듯이, 귀신 또한 귀와 신이 결합해서 하나의 사물을 이룬다. 귀신의 관점으로 보면, 귀신은 이기의 양능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귀신의 회합으로 생겨난다. 혼백(魂魄) 또한 귀신의 관점에서, 혼(魂)은 신(神)이고 백(魄)은 귀(鬼)이다.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주로 죽은 이의 영혼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리학의 합리주의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 신에 속하는 혼은 하늘로 오르고 귀에 속하는 백은 땅으로 스며들면서 서서히 사라져 간다. 특히 살아있을 때의 지각(知覺)은 귀신혼백이 분리되면서 온전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귀신 즉 죽은 이의 지각은 없거나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산 사람과 귀신은 소통할 수가 없거나, 매우 어렵다. 더욱이 귀신의 기는 흩어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변경붕이 옮겨 놓은 마지막 구절의 제사에 대한 글은 위의 귀신론과 다른 뜻을 함의하고 있다. 제사를 흠향하는 조상의 정신 곧 귀신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다시 모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귀신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자손의 성경(誠敬, 정성과 공경)에 의한 것이다. 이는 자손의 기와 귀신의 기가 감응(感應)을 해서 생겨난 것이며, 그 관건은 정성과 공경에 있다는 뜻이다. 정성과 공경의 주체는 자손의 마음이다. 따라서 제사는 마음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이상이 위 인용의 귀신론과 제사론에 대한 대강의 설명 논리이다.[14] 비록 변경붕의 『문집』에는 북송의 제현들과 주자의 글만 채록되어 있을 뿐이지만, 성리학자라면 이러한 내용은 숙지해야 하는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채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성리학의 귀신론과 제사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현웅, 「유가 귀신론의 사유 구조와 주희 귀신론의 독법」, 『유학연구』 57,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223-262면을 참고.

변경붕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 그의 『문집』은 죽다가 살아난 여러 번의 기이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15] 이 가운데 천연두에 걸렸다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기록이 있다. 그는 18세인 갑오년(1774)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과거를 보다가 자신의 시험지를 베껴 쓰는 친구를 보고 울분을 이기지 못한 채 시험장을 박차고 나온 뒤에, 뜻밖에 천연두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변고를 당했다. 이때 민간의 구급방으로 월경한 피를 마시고 기력을 차리게 된다. 변경붕은 자신이 병이 걸리고 회복한 과정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석한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정성이다.

> 내가 천연두에 걸리고서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 새벽에 목욕하고 깨끗한 그릇에 물을 받아 신위를 마련하여 앞에 올리셨다. (…) 상 앞에 엄숙히 앉았으니, 천연두의 신이 따뜻하게 경건한 정성을 받아들였을 것이다.[16]

성리학자가 천연두의 신을 인정하는지는 불문하고라도,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성리학자의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성을 다한 아버지의 마음에 신이 감응하였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다. 그리고 배면에서 효(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근심한다."[17]는 것이 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귀신에 대한 성인(공자)의 말씀을 증험한 것이다. 마을의 다른 집에서는 천연두에 걸린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잘못되자 천연두의 신을 모욕하고 애써 마련한 신위를 짓밟았다. 그러나 그 딸의 어머니는 과거에 걸렸던 천연두가 갑자기 재발하여 죽고, 이어 손아래 다른 딸도 따라 죽었다. 그 딸의 어머니는 이전에 천연두를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하니,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 이것으로 보건대 사람들의 말은 속일 수가 없다. 성인이 말하길 "귀신을

15) 변경붕, 「02.어렸을 적 세 가지 기이한 일을 기록하다」, 앞의 책, 30-32면; 「03.어렸을 적 사적(史蹟)을 기록하다」, 같은 책, 36면; 「06.기해(己亥)년 바다를 건넜을 때의 기록」, 같은 책, 50-51면.
16) 「06.기해년 바다를 건넜을 때의 기록」, 같은 책, 51면.
17) 『論語』「爲政」 6장. "맹무백이 효를 묻다. 공자께서 말씀하였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를 근심한다(孟武伯問孝. 子曰. 父母, 唯其疾之憂)."

> 공경하되 멀리하며" 또 "충만하여 위에 있는 듯하다"라고 하셨으니, 진실로 신은 모독할 수 없으며 또한 모멸할 수도 없다.[18]

"귀신을 경원(敬遠)하라"는 공자의 말씀은 유학자가 사태를 판단할 때 따르는 지표이자 귀감이다.[19] 성리학도 이를 받아들이며, 특히 『중용(中庸)』에서는 신의 존재가 허구가 아닌 분명한 사실임을 중요하게 천명하고 있다.[20] 그러나 이들 경전에서 말하는 신이 천연두의 신까지 포함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나, 천신(天神)과 지신(地神) 및 산천(山川)의 신들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학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천연두의 신은 인귀(人鬼)가 아닌 자연신으로서 제사의 대상일 것이다.[21]

이웃 집 여인이 범한 신에 대한 모독은 그 자체로도 '불경(不敬)'하지만, 더욱 불경한 것은 정성과 공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의 일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신의 감응은 마음을 통해 기원하고 효험이 내리는 것인데, 그 마음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른바 '신벌(神罰)'에 대한 변경붕의 관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어지는 변경붕의 해석은 좀 더 성리학자다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하늘이 계절에 따라 병을 유행키는 것은 그 기운이 고르지 못해서 그렇다. 기운이 굽히고 퍼지며 왕래함에 답답하여 흩어지지 않으면 맺혀서 형상이 되고, 때로 나타나거나 없어지니, 이치가 혹 그러하다.[22]

---

18) 변경붕, 앞의 책, 51면.

19) 『論語』「雍也」. 20장.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智矣)."

20) 『中庸』 16장. "귀신의 덕(德)이 지극하다.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나, 사물의 본체가 되어 빠뜨릴 수가 없다.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계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하게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 『시경』에 이르기를 '신(神)이 이르는 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 하물며 신(神)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는 은미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니, 성(誠)이 가려질 수 없음이 이와 같도다(鬼神之爲德, 其盛矣乎.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不可遺. 使天下之人, 齊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 詩曰, 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射思. 夫微之顯, 誠之不可揜, 如此夫)."

21) 조상을 비롯하여 여러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모두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의미이다. 박성규, 앞의 글, 2면.

22) 변경붕, 앞의 책, 52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굴신(屈伸)과 왕래(往來)가 곧 귀신이다. 이는 귀신에 대해 인간학적 측면 보다는 자연학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속인들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귀신의 실상이란 자연적인 존재의 활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해석이다. 자연적인 존재의 활동이 또한 '귀신의 소행'이라는 것이 역설적이다. 그러나 오직 성리학자들만이 이러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변경붕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기론과 귀신론에 대해 이미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성리학자였기 때문이다. 실존적 문제에 대한 변경붕의 성리학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정점에 이른다.

> 푸닥거리할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으니, "내 마음을 바로 할 뿐이다(正吾心)"이다. 마음을 바로 하는 방법은 '경성(敬誠, 공경과 정성)'일 뿐이다. 경성은 신이 있어도 감동시킬 수 있고, 신이 없어도 어울릴 수 있다.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이 두 글자는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23]

변경붕이 제양(除禳, 푸닥거리)을 대하는 태도는 보통의 유학자들이 음사(淫祠)로 취급하거나 이단(異端)과 사설(邪說)로 배척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는 푸닥거리를 용인하지는 않지만, 푸닥거리가 효험을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성리학자의 인식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실존적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푸닥거리에서 신과의 소통은 감응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제사에서 조상의 정신을 이르게 할 때 자손들이 일심(一心)으로 정성과 공경에 전념하여 감응하는 것과 상응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이를 좀 더 합리적이고 정합적이며 포괄적인 세계관 곧 성리학의 논리로 해석한다.

유독 푸닥거리의 문화가 그 기저에 강고하고 깊게 자리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문화는 유학자들에게는 교화(敎化)의 대상이 되지만,[24] 그러한 문화를

23) 같은 책, 51면.

24) 숙종 때 제주 목사(牧使)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은 음사(淫祠)와 불우(佛宇, 불당) 130여 개소를 헐고 무당들 400여 명을 농사짓게 조치하는 이른바 교화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했다. 이후 이형상은 이를 치적으로 인식한 제주 유생들의 진정에 따라 영혜사(永惠祠)에 배향되었다. 그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음미할 수 있는 관념을 찾는 것에서 제주 성리학자 변경붕의 철학적 특징이 어떤 근본적인 태도에서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의 『문집』에서 매우 기이한 경험으로 기록되고 있는, 무격(巫覡) 일령(一靈)의 일화에도 이러한 그의 근본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25]

변경붕은 천연두에 걸리기 4년 전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다시 성찰한다. 15세였던 경인년(1770) 3월에 특별히 아픈 곳을 알지 못하지만, 몸이 지치고 어지러웠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였다. 병의 근원이 어디인지 몰랐고 점점 쇄진하여 숨 쉬는 해골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때에도 민간의 구급방을 쓰고 기원하고 굿하는 것을 지속한 듯 했다. 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했다. 이윽고 일령이라는 무격이 등장해서 동전점을 치고 나서 말한다.

> 서울에서부터 잡귀가 따라왔다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 마침 도령님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사지에서 장부에 깊이 들어와 음식을 전폐하였으니 (…) 제가 굿하여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일령이 손으로 총령을 흔들고 입으로 지장보살을 초청하고 (…) 명도로 사지를 어지럽게 찌르니 (…) 콩으로 세차게 내리치니 소리가 벼락같았다.[26]

굿을 한 뒤에 변경붕은 사라졌던 식욕이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졌다. 무격의 굿이 효험을 보인 것 같았다. 그러나 변경붕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먼저 변경붕은 무격의 영험함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조건들을 검토한다.

> 무당이 신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일령만이 홀로 신령했던 것은 어째서인가? 무격 중에서도 신령스럽고 신령스럽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 과연 귀신의 곡소리를 내쫓고 효험을 얻은 것일까? 몸소 겪었지만 진실을 얻지는 못했다.[27]

러나 이러한 강제적 교화는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제주의 각종 설화에서는 이형상이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상징하는 구렁이의 저주를 받아서 몰락하는 이야기가 형성되었다.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탐라문화』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3. 참고.

25) 변경붕, 앞의 책, 50-55면.

26) 같은 책, 53면.

병을 낫기 위해 여러 굿을 했지만, 효험을 본 것은 일령의 굿이었다. 굿이 치병(治病)의 원인이 된다면, 일령이 병의 원인으로 지목한 귀신의 소행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의 소행이란 잡귀의 소행이기 때문에 성리학의 합리주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선 천연두의 신 일화에서처럼, 일령의 정성이 병을 낫게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의 소행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변경붕의 의혹은 그러한 사태에 대해 마땅한 이치를 얻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그의 의혹은 무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센 성리학자의 태도라기보다는 현상의 배후에 놓인 어떤 합리적 이해를 구하는 성리학자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현전하는 사건을 두고 합당한 이해를 구하는 태도야말로 치병의 원인으로 무격의 신령함을 인습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숙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표출되었다.

> 세상에서 귀신은 바른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다. (…) 귀신이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무당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니 이치가 그런 것이다.[28]

변경붕은 일령의 영험함이라는 설명논리보다는 성리학자의 합리적 신념에 판단을 두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명령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다. 변경붕은 이것을 현상의 근저에 놓인 이치로 간주하였다. 이 이치는 경전을 통해서 전해진 성현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 삶과 죽음은 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29]

경전에 대한 존숭은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27) 변경붕, 앞의 책, 54면.
28) 같은 책, 54면.
29) 『論語』「顔淵」 5장. 자하가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삶과 죽음은 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고 한다. 군자는 경을 하고서 잃음이 없으며, 남을 대함에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 천하가 다 형제이니,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겠는가(子夏曰. 商, 聞之矣, 死生有命, 富貴在天. 君子, 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 皆兄弟也, 君子, 何患乎無兄弟也)."

변경붕은 자신의 병이 나은 이유를 이러한 신념을 토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먼저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혈기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런 약점 때문에 귀수(鬼祟, 귀신에게 홀려 생긴 병)가 틈을 탄 것이라 보았다.[30] 이 같은 설명은 무속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생리학적이고 의학적인 인식에 기반을 둔 설명이다. 요즘 말로는 청소년기에 겪는 일종의 신경증(neurosis)으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감응론도 설명원리가 된다. "큰 질병이 들어오고 요망스러운 돼지가 들에서 운다." 이는 '미래에 닥칠 사건이란 먼저 조짐부터 고지한다'는 시간의 선후에서 일어나는 감응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다.[31] 이어서 무격들이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은 역사적 증험에 대해서 상고하고, "무격의 이름은 경전에 말하지도 싣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음행(淫行)으로 인한 폐해가 컸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유선(劉禪)과 서문표(西門豹)의 사례를 예증한다.[32]

변경붕이 내린 결론은 귀신의 소행을 부정하고, 치병의 원인을 일령의 영험함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현상의 명백한 인과 관계를 부정하고 성리학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합리화로 생각될 소지가 충분하다. 변경붕의 추론 과정과 예증의 사례는 성리학자들의 신념에서 연역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법은 실제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전형적인 성리학적 방식이다. 그가 말한 '우연'은 성리학의 논리에 따르면 정리(正理)가 아니라 변리(變理)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 바람, 이슬, 천동, 해, 달, 낮, 밤 등이 귀신의 자취이니, 이는 '명백히 공평하고 정직한(白日公平正直) 귀신'이다. 그런데 이른바 '바르지 않고 사악하며 어두운(不正邪暗)' 것으로, 있다 없다 갔다 왔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들이다. 또 '기도하면 응하고 빌면 얻는다'라고 한 경우 역시 귀신이라는 것인데, 이 모두는 똑같은 이치이다. 세상만사가 모두 이런 이치이나 다만 정조나 대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33]

30) 변경붕, 앞의 책, 54면.
31) 성리학자에게 감응의 논리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신념체계이다. 『中庸』 24장. "지성의 도는 일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至誠之道, 可以前知)."
32) 변경붕, 앞의 책, 54면.

성리학에서 귀신은 '공평하고 정직한 귀신'이 있고, '바르지 않고 사악하며 어두운 귀신'도 있다. 앞의 것이 정리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변리이다.[34] 하지만 정리나 변리도 모두 이치[理]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와 변리는 현상의 두 측면 곧 정상적인 현상과 비정상적인 현상에는 모두 일정한 이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변경붕이 말한 우연이란 일령의 영험함을 부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단지 불가지(不可知)한 것이라고 회피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것이 비록 기이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현상은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 단번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지금의 안목으로는 우연으로 인식되는 것이라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성리학자답게 무격이 저지른 음사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자손에게 주는 경계로 삼는다는 의도로 글을 지은 것이라며 결론을 맺는다.[35]

2) 명론(命論)

변경붕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인물로 다분히 종교적인 심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의 『문집』에는 죽고 사는 인간세의 요수(夭壽)를 접하는 심경과 이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담은 글들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사색할 때 등장하는 것이 명(命)이다. 명은 수명(壽命)이나 명맥(命脈)에서처럼 생명을 뜻하고, 운명(運命)이나 정명(定命)처럼 하늘이 정한 분수(分數)에 따르는 숙명(宿命)의 의미, 그리고 하늘이 내린 이치를 뜻하는 천명(天命) 등의 뜻이 중첩되어 있다. 공자나 맹자는 물론이고

---

33) 「鬼神」, 제11조목(『朱子語類』卷3). "雨風露雷, 日月晝夜, 此鬼神之跡也, 此是白日公平正直之鬼神. (…) 所謂不正邪暗, 或有或無, 或去或來, 或聚或散者. 又有所謂禱之而應, 祈之而獲, 此亦所謂鬼神, 同一理也. 世間萬事皆此理, 但精粗小大之不同爾."

34) 「答黃商伯」(『朱子大全』卷46). "배우는 사람은 응당 정리에 대해 견식이 수립되어 있어야 비로소 변리(理之變者)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깨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리가 먼저 마음속에 정견으로 자리잡고 있게 되면 정리를 끝내 깨우치지 못하고 맙니다(學者, 當於正理上立得見識, 然後理之變者, 可次第而通. 若將理之變者, 先人於心, 立爲定見, 則正理終不能曉矣)."

35) "자손들이 무당에 무혹에 억눌릴까 두려워서 특별히 기록하여 경계한다." 변경붕, 앞의 책, 55면.

동아시아의 제자백가들은 모두 명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36]

변경붕이 삶을 회고한 기록에서 명이 등장하는 것은 주로 생사의 문제와 미래사에 관련된 것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변경붕의 부친은 운명을 다루는 이른바 명리학(命理學)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아는 선견지명을 가질 정도의 이인이었다. 변경붕이 27세 되던 임인년(1782)은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매우 불운한 해였다. 3월에 모친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당시 62세 되던 부친은 한 해가 저무는 12월에 자손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 (나는 이 달) 14일에 죽을 것이고, (…) 다음 해 3월 21일 인시(寅時)를 기다려 하관하면 좋을 것이다.[37]

변경붕이 그 이유를 물으니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가 태어난 해가 신축년(辛丑年)이고, 날은 정미일(丁未日)인데, 이 날은 간지(干支)가 상극(相克)이 될 때이니, 반드시 명이 다할 때이다.[38]

과연 14일 축시(丑時)에 부친은 세상을 떠났다. 일반적으로 명리학의 논리에 따르면, 부친은 연지(年支)의 축토(丑土)와 일지(日支)의 미토(未土)가 서로 상충(相沖)하는 관계를 가진 구조를 띤 명인데, 이는 변화가 많고 신고(辛苦)한 삶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가 14일 축시의 기운에 감응하여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자신의 임종을 아는 경지라면 상당한 수준의 명리학 지식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붕은 부친에게서 이러한 지식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문집』의 첫머리에서 명리학의 언어를 빌어 자신의 일생을 예지한 것은 단지 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추단하는 학문에 공감하고

---

36) 이택용, 『중국 선진시대의 명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2. II장의 "명론의 등장 및 학문적 담론화" 참고.
37) 변경붕, 「04.보고 들은 것에 대한 기록들」, 앞의 책, 42면.
38) 같은 책, 42면.

있었고, 더 나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해준다. 그는 자신의 태몽에 등장한 동물의 물상(物象)과 명리를 연관 짓고 있다.

> 작은 돼지가 남쪽에서 오는데, 털이 매우 고왔고 모습이 사랑스러웠는데, 갑자기 품으로 달려들었다. (…) 이때부터 산기가 있어 나를 낳았으니, 병자년(丙子年, 1756) 경자월(庚子月) 정해일(丁亥日) 정미시(丁未時)였다. 그 꿈의 계시로 내 운명을 육십갑자로 논하여 "병자는 햇살이 무덤을 비추는 것이고, 정해는 작은 돼지가 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아이를 얻었으니, 후에 반드시 현달할 것이라" 라고 하였다.[39]

명리학의 관점에서 변경붕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명의 주체는 태어난 날의 간지인 정해(丁亥)이다. 정해는 간지의 상징에 따라서 정화(丁火)의 붉은 색과 해수(亥水)의 돼지 상징이 합해져서 "붉은 돼지"가 되며, 방위로 보면 정화는 남쪽이므로, "남쪽의 돼지"가 된다.[40] 아이의 미래가 현달하다는 것은 명리의 총평으로 볼 수 있지만, 태몽과 일간이 부합된 것에서 현달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명리학 지식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영향을 입은 가풍이며, 변경붕의 일생을 지배한 관념이 되었다. 그런데 이 때의 명은 '운명'이나 '숙명'의 의미를 띤 것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물론이고, 과거 급제와 같은 입신양명의 문제에서도 명의 관념은 지속된다. 이는 주로 미래의 예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명을 추측하는 명리학과 꿈의 조짐은 자주 연결되기 쉽다. 둘 모두는 미래를 파악하는 선지(先知, 예지)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변경붕은 꿈의 조짐이 현실에 실현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41] 또한 꿈의

39) 변경붕, 「01.천제연(天帝淵) 동쪽에 집터를 정할 때의 꿈을 기록하다」, 앞의 책, 29면.
40) 앞선 구절인 "병자는 햇살이 무덤을 비추는 것(日影之照壙)"이라 한 것은 병자(丙子)를 사물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병화(丙火)가 햇살인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자수(子水)가 무덤이라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무덤의 상징은 보통 진술축미(辰戌丑未)의 사고(四墓)에 적용되는 편이며, 운성법(運星法)으로 자수는 태(胎)이며, 병자는 납음오행(納音五行)으로도 간하수(澗下水)이므로 무덤이라는 비유나 상징의 사용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글자 표기가 맞다면, 다른 해석방법이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41) 변경붕, 「08.과거 급제할 때의 꿈을 기록하다」, 앞의 책, 61면. 예컨대, 이웃의 꿈에서 변경붕이 머리를 산발하고 삼베를 끌며 울부짖는 꿈이 있었다. 이웃들은 이를 급제의 꿈이라 해몽했으나, 본인은 부모의 안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낙방하게 되었다.

조짐뿐 아니라 특이한 사물의 조짐도 경험했다. 시험장을 가면서 까투리 한 마리가 눈 위에 특이한 무늬를 만들고, 다시 까마귀 무리가 주위를 돌며 떠나지 않았다. 변경붕은 여기서 "새들이 먼저 조짐을 알려주는 것"이라 자각한다. 이 역시 급제의 징조라고 생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험장 근처에서 숙식했던 주막집 주인도 '대문 양쪽 사립문에 용과 호랑이가 쌍으로 웅크린' 꿈을 꾸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주인집 조카와 변경붕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다.[42] 이러한 경험은 범인이나 사인(士人)들이라도 모두 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일 것이다. 그런데 변경붕은 이러한 조짐을 통한 예지의 경험에 대해서 성리학자의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

> 대개 사람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님이 없다. 신이 먼저 알려주지만, 오직 사람만이 형태가 지워지기 전에 알지 못하여 혹 이미 정해진 후에 늦게 깨닫는다. 일어나려는 상서로움과 망하려는 요망한 징조가 어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가? 이는 매우 분명한 이치가 아닌가? 저 꿈속에 몽매하여 분명하지 않은 일과 미미하고 아는 것이 없는 금수와 같은 것은 내 일신의 길흉화복에 먼저 징험을 보여주고 합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43]

꿈의 조짐뿐 아니라 모든 사물의 조짐은 사람에게는 길흉화복으로 드러나는데, 이를 주관하는 것은 하늘 혹은 신이다. 변경붕은 『중용』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현실의 경험을 해석하고자 한다.

> 지성의 도는 일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으니, 국가가 장차 일어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있으며, 국가가 장차 망하려면 반드시 요괴스러운 일이 있어, 시초점과 거북점에 나타나며, 사체에 동한다. 그리하여 화와 복이 장차 이름에 좋을 것을 반드시 먼저 알며, 좋지 못할 것을 반드시 먼저 안다. 그러므로 지성은 신과 같은 것이다.[44]

이 경우는 꿈이 영험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42) 같은 책, 62면.

43) 같은 책, 63면.

44) 『中庸』 24장. "至誠之道, 可以前知, 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孼, 見乎蓍龜, 動乎四體. 禍福將至, 善必先知之, 不善必先知之. 故至誠如神."

변경붕의 실제 경험은 『중용』의 감응 관념에 따라, 길흉화복의 주관자는 하늘이지만 이 하늘은 지성지도(至誠之道)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파악되고 있다. 지성지도는 천도(天道)이며, 귀신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속신에서 말하는 신이나 푸닥거리의 신과 같은 인격적 존재라기보다는 비인격적인 '이치'를 가리킨다. 하늘의 조짐은 복서(卜筮)에 드러나고 인간의 이성이 이것을 해석하여 예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지가 가능한 것은 하늘과 인간이 이치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곧 하늘은 밝은 이치의 다른 표현이며, 인간은 이러한 밝은 이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밝은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꿈의 조짐이 맞지 않은 이유를 사색하면서 다시 등장한다.

> 번다한 꿈이 진실로 나타나지 않고 일장춘몽이 영험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릇 마음이란 생각하는 기능을 관장한다. 사사롭고 망령스런 생각이 천만 가지 단서가 되면 마음의 병이 되고, 병으로 허령한 본체를 잃어버린다. (…) 만약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꿈을 꾸면 진실이 되지만, 안정된 연후에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위가 없는 사람이 꿈을 꾸면 실제가 되지만, 공정하고 밝은 다음에야 능통할 수 있다.[45]

꿈의 예지는 영험하지만, 그 영험함은 인간의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성리학자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성찰은 마음의 망령으로 인해 허령한 본체 곧 생각하는 힘을 상실하는 데 있으며, 인위적인 사려나 사적인 욕망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면 꿈의 예지는 영험을 상실한다는 데 이르고 있다. 성리학에서는 수양의 행위는 각성 시는 물론이며 꿈에서도 마음을 보존하는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꿈이라는 정신의 지각 작용을 귀신(혼백)으로 설명하면서, 꿈조차 마음(정신)의 수양으로 귀결시킨다.

> 주자가 말씀하였다. "혼과 백이 교섭하여 잠을 이루니, 마음이 이 사이에 있으면 지나간 예전 것들에 의존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45) 변경붕, 앞의 책, 63면.

만약 정신이 안정되면 잠자며 꿈을 꾸어도 엎어지는데 이르지 않는다."[46]

꿈의 조짐은 미래사의 과거급제와 관련이 있었다. 변경붕은 이러한 경험을 두고서 철학적인 성찰의 결과를 내놓는다. 그는 갑인년에 치른 과거에서 처음에 낙방했지만, 임금이 그 결과를 뒤엎고 낙방한 시험지를 다시 살펴서 합격시킨 일을 두고 "하늘이 내린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한다.[47] 이러한 표현은 행운을 얻었을 때 쓰는 일반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소 운명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진 그에게는 남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운명'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 의미를 성찰해 본다.

> 아마도 조화옹이 어둡고 어두운 곳에 있어 사람들에 앞서 명을 정해놓고[定命] 일에 따라 운수(運數)를 정한 것인가? 어리석으면서도 부귀하게 살고 현명하지만 가난하고 천하게 하는 것은 사광(師曠)의 총명함으로도 미리 들을 수 없고, 밝은 이루(離婁)도 먼저 볼 수 없다.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고, 사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부귀와 더해진 은택이 우리 삶을 두텁게 하고 빈천과 걱정이 너를 옥처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은 진실로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할 지극한 말씀이다.[48]

사람이 요절을 피하고 장수하며, 빈천을 피하고 과거급제와 같은 귀한 자리와 풍요로운 재물을 얻는 것은 오직 조화옹만이 하는 것이며, 인간은 누구도 조화옹이 정해 놓은 과정을 알 수 없다. 조화옹으로 의인화된 명이란 이미 수(數)처럼 그 행로가 정해진 것과 같아서,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서 '가슴 속에 담아두고' 충심을 다해 잊지 않아야 하는

---

46) 『心經附註』「牛山之木章」. "朱子曰. 魂與魄交而成寐, 心在其間, 依舊能思慮, 所以做出夢. 若心神安定, 夢寐亦不至顚倒."

47) 변경붕, 「16.갑인(甲寅)년 과거를 실시했을 때의 이야기」, 앞의 책, 195면.

48) 같은 책, 195-196면. "其必造化翁在于冥冥之中, 先乎人物而定命, 隨其事爲而行數, 雖愚而富貴, 雖賢而貧賤, 師曠之聰, 不得預聞, 離婁之明, 不得先見, 不期然而然, 莫知爲而爲, 人不得間焉, 物不得逃焉. 然則富貴補澤厚吾生, 貧賤憂戚玉女成者, 誠拳拳服膺之至言也."

성리학자들의 오래된 신념이다.[49] 명이란 인위적인 것이 아니며 자연적인 것이라서, 결국 하늘의 소관이라는 가르침이다.

> 하지 않아도 절로 되는 것이 하늘이요, 부르지 않아도 절로 이르는 것이 명이다.[50]

명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수동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서, 말하자면 지명(知命)하여 삶의 사명(使命)으로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라는 것이 변경붕의 생각이다. 그는 자신의 성찰을 성리학의 한 근간이 되는 장재(張載, 1020-1077)의 「서명(西銘)」 마지막 구절로 천명한다.[51]

변경붕은 명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부귀와 복택이 되면 여유로운 삶이 되고, 그렇지 않고 빈천과 근심이 될지라도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명을 수동적인 운명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늘이 부여한 것을 죽을 때까지 따르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는 사명으로 명을 이해한 것이며, 전형적인 성리학자의 인식이다. 운명에서 천명(하늘이 부여한 사명)으로 명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신이 부여한) 명을 따르거나 (신을 움직여서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사명으로서의) 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군자가 되기 위한 성리학자에게는 "명을 모른다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이기 때문이다.[52]

---

49) 『中庸』 8장. "안회(顔回)의 사람됨으로 말하면, 중용의 길을 택하여 행하면서, 어떤 한 가지 선을 얻으면 가슴속에 담아두어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拳拳服膺, 而弗失之矣)."

50) 『孟子』「萬章上」 6장. "莫之爲而爲者, 天也, 莫之致而至者, 命也."

51) 張載, 「西銘」(『張子全書』卷1). "부귀와 복택(福澤)은 장차 나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고, 빈천과 근심 걱정은 옥을 다듬듯이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이네. 살아서 나는 하늘을 따르고 섬기리니, 죽어서 나는 평안하리라(富貴福澤, 將厚吾之生也, 貧賤憂戚, 庸玉女於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

52) 『論語』「堯曰」 3장. 공자가 말씀하였다.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모르면 제대로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4. 결론: 실존적 삶과 성리학의 정체성

변경붕은 자신의 철학사상을 본격적으로 저술한 것이 거의 없거나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철학사상을 살핀다는 것은 문헌의 제한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채록을 통해 남긴 글에는 기호학파의 성리학 이해를 보여준 율곡의 글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철학사상이 담겨 있다. 비록 채록한 글이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도 없지만, 채록 그 자체가 특정한 인식과 의도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가 동의하고 수용하려는 철학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공식적인 철학사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채록 기사를 살펴보면 대략 두 부분으로 구성된 철학이 드러나 있었다.

첫 번째는 율곡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가 기호학파의 계승자로 생각될 수 있는 이유이며, 율곡을 통해서 성리학을 공부하려는 의도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변경붕이 채록한 내용은 율곡의 독창성이 잘 드러난, 이통기국론과 기발일도설, 인심도심론과 사단칠정론이었다. 이러한 채록을 통해서 율곡학을 습득하고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채록들이 어떤 저술을 염두하고 진행한 것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두 번째는 제주에서 이루어진 실존적 체험을 성찰한 내용이다. 이는 변경붕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글로서, 율곡학에 대한 것이 공식적이고 외면적인 철학이라면 이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면의 철학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 삶과 죽음에 대한 체험과 그것의 의미를 추구했으며, 종교적 의례의 영험이나 꿈의 조짐과 예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한 인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내면적 사색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 귀신론과 명론이라는 주제를 설정했다.

귀신론은 인간 실존의 큰 문제인 삶과 죽음, 영혼(귀신) 등을 성리학의 이기론으로 해석한 담론체계이다. 성리학에서 귀신은 이기론의 합리주의에 포섭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현상은 단지 자연의 정상적인 과정이거나 혹은 아직 합리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이해되며, 궁극적으로는 이치를 가진 것으로 모두 귀결된다.

변경붕은 이해할 수 없는 이른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러한 합리적인 질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성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성리학자 혹은 이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관료들과는 달리 제주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타자의 인식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53] 이와 관련해서 꿈의 조짐이나 무격의 의례에서 발생하는 신이한 현상들도 모두 하늘의 조화로 생각해서 순순히 따르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순종적 태도는 명을 맹목적으로 쫓는 숙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늘이 부여하는 부귀와 빈천이 모두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이를 인간의 길로 수용하는 적극적 입명(立命)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가풍으로 통해 알았던 운명의 관념이 학문을 통해서 더 큰 인식으로 변화해간 것이다.

변경붕은 과거를 통해서 출사를 한 성리학자이며, 오직 학문을 위해 산림에 머문 인물은 아니다. 그가 채록한 글을 보면, 율곡학의 핵심 내용을 잘 선별하고 있으며, 성리학의 너른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채록이 곧 인식의 향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은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진학(進學)을 위해 더 진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만드는 학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붕의 글에서 철학사상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 재료가 잘 구비된 요리 재료나, 건축을 위해 준비한 자재들이라는 비유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아직 본격적인 요리와 건축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의 철학사상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성리학으로 체인된 이해방식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당시 제주의 토속 문화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합리적인 자각을 해나가는

53) 이러한 결론은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은 변경붕의 이러한 인식이 그가 추구한 삶의 태도와 큰 관련이 있고, 이는 성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리학을 연마한 학문적 결과로 생겨난 것임을 논의한데 있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를 이론적 인식의 글이 아닌 일기류의 잡문에서 찾고 있다는 것에서 연구 방법론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리학 이해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 것 같다.

단지 출사의 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를 해석하는 사유의 틀로 성리학을 공부한 것은 성인이 말씀하신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가리킨다. 위기지학을 하는 성리학자에게 자득의 글이나 경전을 보익(補益)하는 글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 그는 불행히도 요절했을지도 모를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었으나, 살아남아 성리학자의 삶을 살았다. 삶이란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그의 근원적인 태도로 보면, 요리와 건축은 이미 그것대로 완성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성리학자의 인식이라면 경전에 실린 성인의 글에 덧붙일 것은 더 없을 것이다. 성리학을 체인한 것이 그의 삶이었으니, 그는 제주에 살았던 명실상부한 성리학자였다.

▮ 참고문헌

『論語』
『農巖集』(한국고전종합DB)
『孟子』
『栗谷先生全書』(한국고전종합DB)
『張子全書』
『朱子大全』, 『朱子語類』
『中庸』

변경붕 저, 김새미오・허남춘・김병국 역, 『(통정대부 사헌부 장령) 변경붕 문집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邊景鵬 文集』,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김새미오, 「일재 변경붕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2010.
김치완, 「제주의 조선유학자 변경붕의 이중문화정체성」, 『문화와 융합』 39(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박성규, 「주자철학에서의 귀신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심경호,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이석명, 「회남자 연구의 사상사적인 의미」, 『泰東古典硏究』 19,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03.
이택용, 『중국 선진시대의 명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2.
전호근, 「16세기 조선성리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조현웅, 「유가 귀신론의 사유 구조와 주희 귀신론의 독법」, 『유학연구』 57,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탐라문화』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3.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http://people.aks.ac.kr/index.aks)

【Abstract】

Philosophical Inquiry on the Neo-Confucianism of Confucian Byon Kyong Bung (1756-1823) in Jeju

Lee, Chang-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Byon Kyong Bung's Confucian philosophy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on Kyong Bung was recognized as a famous Neo-Confucian in the Jeju area, where Neo-Confucianism was not established as a leading principle at the time. In this sense, the philosophical idea of Byon Kyong Bung is an indicator which may measures the level of Neo-Confucianism introduced in Jeju. However, the main obstacle to studying the philosophical ideas of Byon Kyong Bung is the fact that he has written little or no full-fledged philosophical ideas. Yet since many of Kiho School's writings are recorded in his Literary Works, it can be seen that his philosophical position inherits Kiho School. But through thi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independent philosophical idea of Byon Kyong Bung. Despite the external conditions in which Neo-Confucianism's development stage was still at a rudimentary level at the time, his Literary Works have his own reflections of the existential experience based on Neo-Confucianism. These are articles that reveal the inner side of Byon Kyong Bung, and if the articles about Kiho School are an official and outward philosophical idea, that could be seen as a private and personal inner philosophical idea. He seems to have pursued the experience of life and death and its meaning among the existential problems, and deeply reflected on issues such as the spiritual experience of religious rituals, signs of dreams, and foresight. In order to examine the content of his inner thoughts, the main categories of Neo-Confucianism, Guishen(spirits) and Ming(destiny), were set up to examine his philosophical ideas. Byon Kyong Bung show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so-called supernatural phenomenon as a rational order of Neo-Confucianism, which is his effort to establish his identity

* Senior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s a Neo-Confucian. Unlike other Neo-Confucians or Neo-Confucian officials, he has never shown the perception of others who disparage the culture of Jeju or make it an object of edification. His philosophical ideas were forme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his existential situation from Neo-Confucianism's perspective, and this shows an example of Neo-Confucianism's understanding, which gradually became reasonable while contemplating the native culture of Jeju at the time.

Keywords: Byon Kyong Bung, Neo-Confucianism, Kiho School, Guishen (spirits), Ming (destiny), the native culture of Jeju.

접수일: 2022.09.20.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25.